



피톤치드 같은 직원과 함께하는 광주센터 야유회

광주산업보건센터 환경위생팀 사원 / 윤기은



9월 4일(금) 광주센터 전 직원이 가을 야유회를 떠난다. 입사 이후 처음으로 가는 야유회라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장소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햇볕이 뜨거워 시원한 편백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장성으로 최종결정 했다. 편백나무 숲에서 나오는 신선한 피톤치드를 맞으면서 광주센터 직원들과 함께 걸을 생각을 하니 야유회가 더 기다려진다.

우리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 출발하였다. 출발하기 전에 얼음 가득한 물도 챙겼다. 도심을 벗어나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의 향기를 만끽했다. 어색하기만 했던 직원들과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덧 장성에 도착했다.

“까호”





초가을이지만 아직도 여름이 머물고 있어 수영장에 들어갈 생각에 들떴다. 짐을 풀고 달려갔지만 기쁨도 잠시 수영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물놀이는 취소했다. 대신 족구와 피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입사원으로서 나는 우선 걱정부터 앞섰다.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또한 별 탈 없이 보낼 수 있을지 등 막연한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이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팀장님과 차장님들의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한층 더 힘이 났다.

첫 번째 경기는 족구!

남녀 혼용으로 구성된 족구 경기는 남직원들은 발로만, 여직원들은 손, 발, 배 등 모두 사용 가능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4조는 술술 풀리는 흐름과 모두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일등을 하나 싶었지만 꼴찌를 하고 말았다. 전력이 막강한 조와 팀워크가 갖춰진 조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나 보다. 관중석에서 다른 조 경기를 보면서 구경도 하고 응원을 하다보니 꼬르르~ 배가 고파왔다. 때마침 야유회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간식이 와서 허겁지겁 먹었다. 배를 든든히 채운 뒤 다음 경기를 하러 갔다.

두 번째 경기는 피구!

큰 사각형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2개의 조로 나뉘어서 남녀 혼용으로 조를 편성했다. 국장님은 깎두기. 다들 경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공을 피하곤 하였으나, 점점 사람이 줄어들수록 직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승부욕이 드러났다. 보이지 않는 공의 속도며 넘어져도 탈탈 털고 일어나는 진지함까지 보였다. 그래도 하하호호 경기장을 벗어나는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경기 결과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경기가 마무리 되어 갈수록 광주센터 직원들은 차츰 더 하나가 되어 가는 느낌이 었다.

저녁에는 간단한 바비큐 파티와 더불어 다양한 게임이 준비 되어 있었다. ‘몸으로 말해요’, ‘의리게임’, ‘노래 자랑’ 등 여기저기서 함성 소리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 게임 중간 중간에 이벤트도 하면서 상품





추첨도 했다. 양념같은 이벤트는 직원의 참여도를 이끌어 냈으며 사기도 충전시켰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잠시 후 국장님의 심사 발표가 이어졌다.

두둥우두우두우둥우둥



1등 팀은 모든 게임에서 순위권 속에 있었던 5조! 모든 직원들이 축하하며 잘했다고 격려에 칭찬을 더해 주었다. 상금은 무려 20만원. 야유회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날 뒷풀이까지 마련해주셨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부서별로 모여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춤추며 노래를 시작하였다. 다시 끝나지 않을 저녁 파티가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장선의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트래킹을 들었다. 피톤치드는 편백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자연 향균 물질이다. 처음 내 코 끝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신까지 맑게 만들었다.

자연과 어울려 지낸 1박2일 동안 직원들 서로가 함께 웃고 격려하며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광주센터가 하나 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 다 동료애를 보여 주었다.

이번 야유회는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고 기억에 남는 추억 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야유회가 기다려진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아자 아자! 🎉

